

numbers 제 111호



주요 내용

2021.09.10

1. 이번 주 주제 : [목회자 이중직 실태]

-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현재 이중직 하고 있다' 3명 중 1명꼴!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위드코로나 시점 '11월 말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

- [2020년 아동학대 통계]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12분 마다 한 번꼴!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홈페이지 | www.mhdata.or.kr
E-mail | mhdata@mhdata.or.kr
전화 | 02.322.0726

기독교 통계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현재 이중직 하고 있다’ 3명 중 1명꼴!

이중직 목사가 주목받고 있다. 구글에서 ‘이중직 목회자’라고 검색창에 치면 약 93,200개의 글이 검색된다. 페이스북에 ‘일하는 목회자’라는 그룹이 있는데 여기 멤버가 1만 명이나 될 정도로 이중직 목회자에 대해 관심이 있다. 이중직 목회자는 언론의 단골 기획기사로 나오기도 하고 여기저기 세미나 등에서 자주 거론되는 인기 주제이다. 각 교단 총회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현의안으로 계속 올라오는 핫 이슈이다.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이런 저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비해 이중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제 실태는 어떤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물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 의아스러울 정도이다. 아마도 신학교 교수나 목사들이 실증 연구 혹은 계량 연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증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성돈 교수가 2016년에 「신학과실천」에 발표한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실증 연구’ 정도가 본격적 실증 연구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정도였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과 함께 이중직 목회 혹은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계량 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했다. 아마 당분간은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여러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양과 수준은 될 것이다. 이 조사 연구를 통해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 조사 연구를 위해 후원해 주신 사)아시안미션, 주)위비스, 주)영동개발, 햇불회에 감사드린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 자료 출처(생산자)를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개요

조사 1. 일반 교회 목회자 대상 조사

- 조사 목적 : 일반 교회 목회자의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 파악
- 조사 대상 :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 표본 틀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 소속 담임 목사 리스트
- 표본 추출 방법 :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 표본 크기 : 400명(유효표본)
- 조사 방법 :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핸드폰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기간 : 2021년 6월 10일 ~ 6월 17일(7일간)

조사 2. 이중직 목회자 대상 조사

- 조사 목적 : 이중직 목회자 실태 파악
- 조사 대상 :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이중직을 하는 담임목사
- 표본 틀 :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및 ‘통합’ 소속 목사 리스트, 횡불회 소속 목사 리스트, 목회데이터연구소 DB, 페이스북의 ‘일하는 목회자’ 그룹 회원
- 표본 추출 방법 : 편의 추출(Convenience Sampling)
- 표본 크기 : 220명(유효표본)
- 조사 방법 :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 조사(핸드폰을 통해 url 발송)
- 조사 일자 : 2021년 6월 10일 ~ 7월 1일(21일간)

[조사 주체 및 주관 기관]

- 조사 주관 : 목회데이터연구소
- 조사 주체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교회자립위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 조사 후원 : 사)아시안미션, 주)위비스, 주)영동개발, 횡불회
- 조사 수행 : 주)지앤컴리서치

Part1. 이중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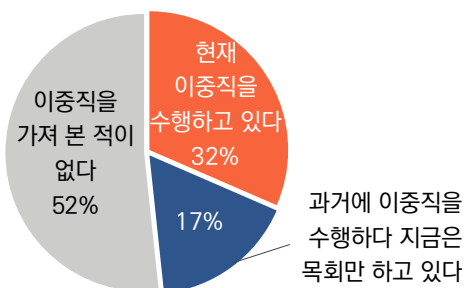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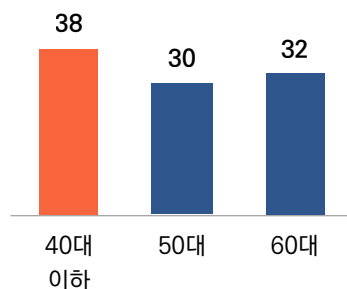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현재 이중직 하고 있다’ 32%(3명 중 1명꼴)

- 이중직 목회자의 비율은 몇 %나 될까? 비율은 분모를 뭘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의 담임목사’라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이중직 수행’ 32%, ‘이전에 이중직 수행’ 17%, ‘전혀 한 적 없음’ 52%였다. 즉 현재 3명 중 1명꼴로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절반가량은 이중직 수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0대 이하의 젊은 목사가 50대 이상 목사보다 이중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 조사 대상을 담임목사 외, 즉 부교역자 및 파트타임 목사에게까지 확대하면 이중직 비율은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이중직 목회자 비율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그림] 현재 이중직 수행 비율(연령별)
(출석 교인 50 이하 교회 담임목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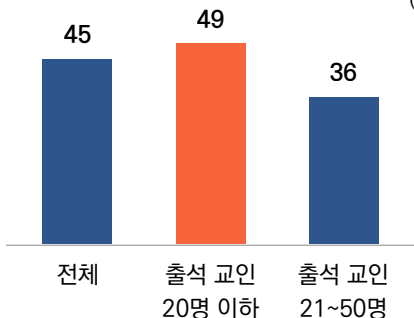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 이중직 비경험자, ‘향후 이중직 수행 의향 있다’ 45%!

- 이중직을 경험해 보지 않은 목회자의 절반 가까이(45%)는 향후에 이중직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현재 혹은 과거에 이중직을 수행했던 목회자와 향후 이중직 수행 의향이 있는 목회자를 합하면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목회자 4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이중직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이중직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현상, 낯선 단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 특히 교회 규모가 작을수록 이중직 의향이 높는데, 그만큼 작은 교회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 이중직 비 경험 목회자의 향후 이중직 의향률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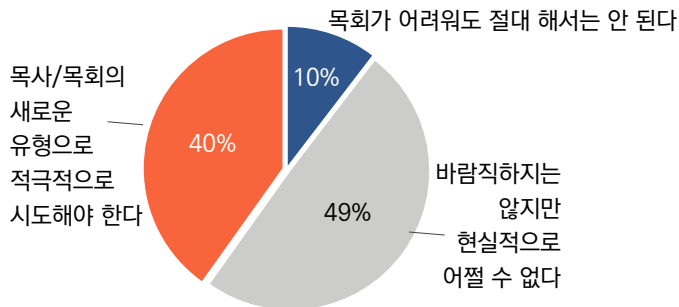
2



일반 소형 교회 목회자, 이중직 목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40%

- 전체 응답자(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중직에 대한 의견을 질문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의견이 49%로 가장 많았다. 전통적인 목회자 상 혹은 역할에서 보면 목회자가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 그런데 이런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서 ‘목사/목회의 새로운 유형으로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40%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이는 목회직 혹은 목회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목회자가 이중직 갖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 목사)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Part2. 이중직 수행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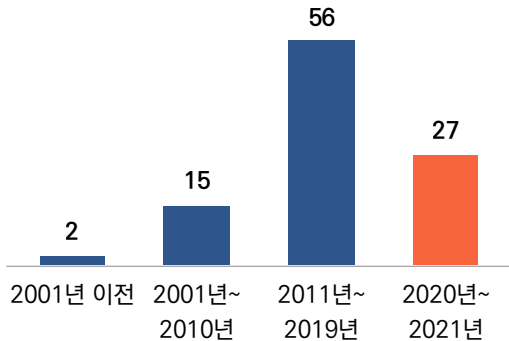
1



‘코로나19 이후 이중직을 시작했다’, 전체 이중직 목회자의 27%

- 현재 이중직 목회자들은 이중직을 최근 10년 사이에 시작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2011~2019년 사이에 이중직을 시작한 비율이 56%였다.
- 그런데 2020년 이후, 즉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이중직을 수행한 비율은 27%나 되었다. 코로나19가 교회와 목회자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 수 있다.

[그림] 이중직 시작한 시기(이중직 목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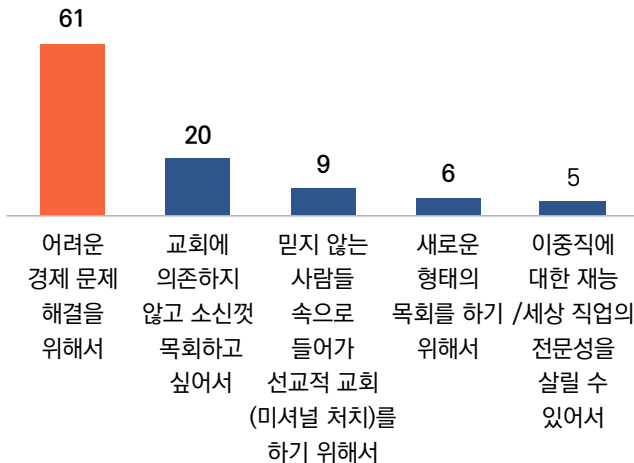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 이중직, ‘경제 문제 해결 위해 시작’ 61%

- 이중직은 ‘어려운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61%) 시작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런데 ‘교회에 의존하지 않고 소신껏 목회하고 싶어서’(20%)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선교적 교회를 하기 위해서’(9%), ‘새로운 형태의 목회를 하기 위해서’(6%)라는 응답도 상당한 것을 보면, 이중직은 단순히 생계 유지 목적을 넘어서 더 긍정적인 의미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이중직 수행 이유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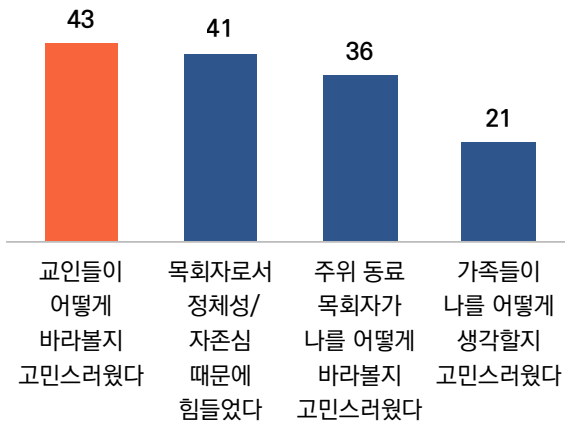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 처음 이종직을 결정할 때, ‘목회자로서 정체성/자존심 때문에 힘들었다’ 41%

- 이종직을 수행할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질문했을 때, ‘교인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스러웠다’(43%)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자존심 때문에 힘들었다’(41%)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응답했다.
- 그 다음으로 ‘주위 동료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고민스러웠다’(36%)도 3명 가운데 1명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율이었다.
- 즉 이종직을 수행할 때, 자기 자신, 교인들, 동료 목회자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그림] 이종직 수행 결정할 때 심정 ‘그렇다’(매우+약간)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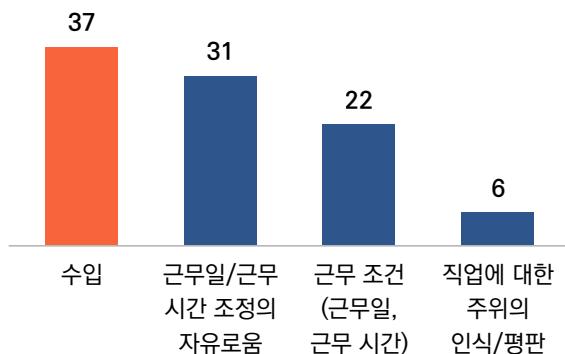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종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총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종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4점 척도 질문임

● 이종직종 선택 기준, ‘수입’(37%)과 ‘근무일/근무시간 조정의 자유로움’(31%)

- 이종직 종류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은 ‘수입’(37%)도 있지만 근무일/근무 시간 조정의 자유로움’(31%)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긴다. 목회자에게 생계도 중요하지만 ‘목회’도 중요해서 두 개를 양립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 50대와 60대는 ‘수입’을 1위 기준으로 선택했는데(50대 39%, 60대 44%) 40대는 ‘근무일/근무시간 조정의 자유로움’(43%)을 1위 기준으로 선택했다. 40대가 이종직을 적극 활용하려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그림] 이종직 수행 이유 (상위 4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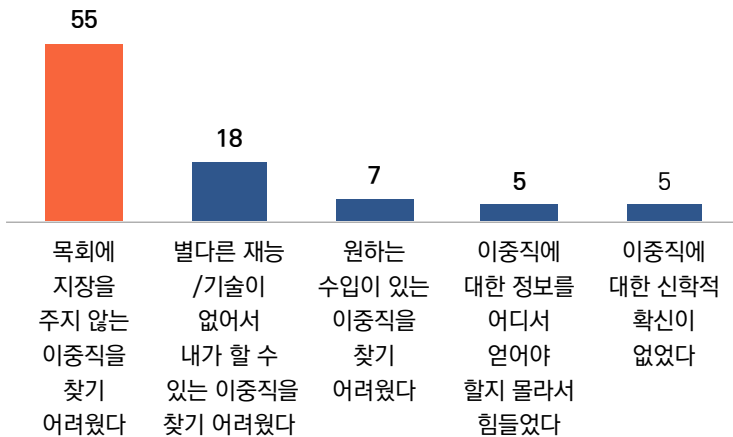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종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총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종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직 찾기 어렵다’ 55%

- 이중직종을 찾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절반이 넘는 55%가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중직을 찾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 그 다음으로 ‘별다른 재능/기술이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이중직을 찾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18%였다. 즉, 목회자에게 적합한 이중직을 찾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었다.

[그림] 이중직 업종/직종 결정시 겪은 어려움 (상위 5개)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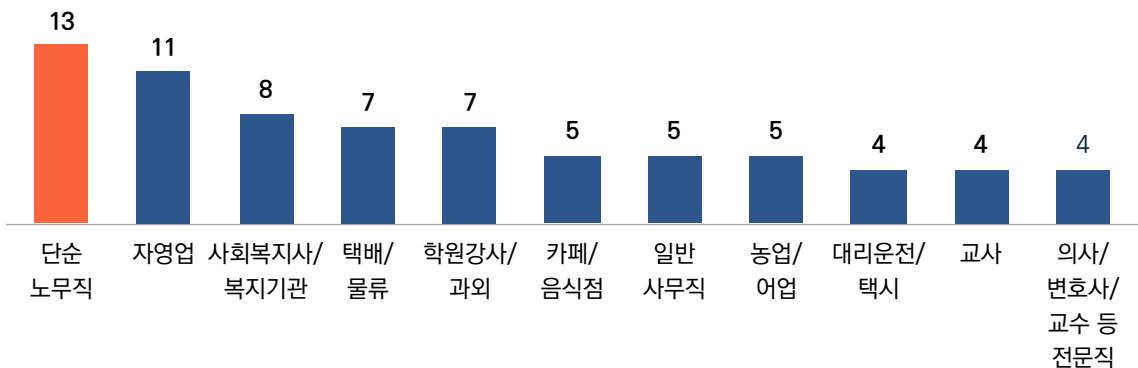
2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중직 1위, ‘단순 노무직’

- 현재 이중직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직종은 ‘단순 노무직’(13%)이다. 그 다음으로 ‘자영업’(11%), ‘사회 복지사/복지기관’(8%), ‘택배/물류’(7%), ‘학원 강사/과외’(7%) 순으로 많이 하고 있다.
- 그런데 이중직 업종 선택 기준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직업이 목회를 위한 시간 할애에 용이한 직업이라는 특징도 일부 엿보인다.

[그림] 현재 수행하고 있는 이중직 업종 (상위 10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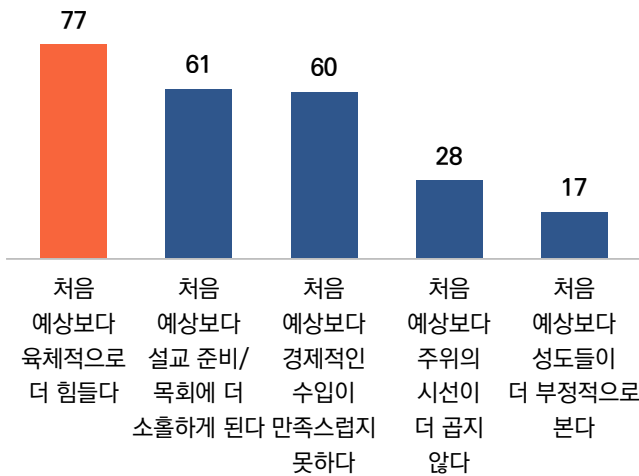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 이중직 목회, ‘처음 예상보다 더 힘들다’ 77%

- 이중직을 수행한 경험을 이중직을 수행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4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처음 예상보다 육체적으로 더 힘들다’(77%)고 응답했다. 또 ‘처음 예상보다 설교 준비/목회에 더 소홀하게 된다’(61%)고 했으며 경제적 수입도 ‘처음 예상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60%)라고 다수가 응답했다.
- 그러나 ‘처음 예상보다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았다’(28%), ‘처음 예상보다 성도들이 더 부정적으로 본다’(17%)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꽤 낮았다. 이중직을 시작하기 전에 실제 이상으로 과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수행한 적이 있는 이중직 수행 전 기대 대비 수행 후 심정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상위 5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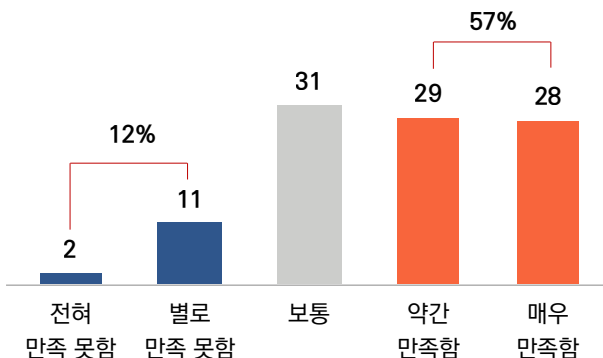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10~7.1)
 **4점 척도 질문임

● 이중직, 만족도 57% > 불만족도 12%

- 이중직에 대한 만족도는 57%이고 불만족도는 12%로 만족도가 훨씬 더 높으며, 평균은 3.71점으로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그림] 이중직에 대한 만족도(이중직 목회자)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 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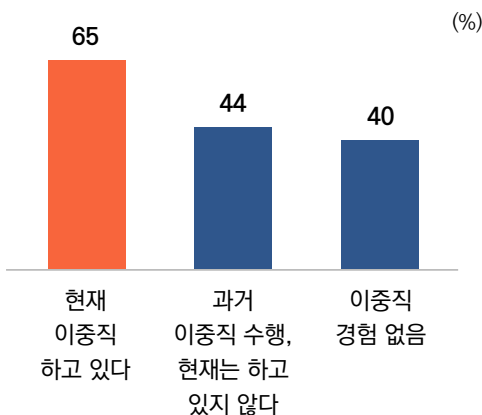
3



이중직 목회자, ‘배우자 직업이 있다’ 65%

- 이중직 목회자의 배우자는 65%가 직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중직을 하지 않는 목회자의 배우자 직업 비율보다 더 높은 수치이다.

[그림] 소형 교회 목회자의 배우자 직업 '있다' 비율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 배우자 없는 목회자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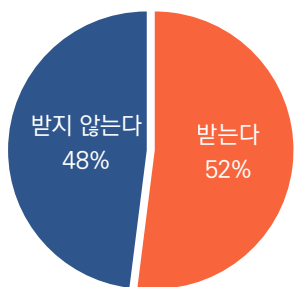
4



이중직 목회자 월 수입, 이중직 132만 원, 교회 사례비 40만 원 등 총 207만 원

- 이중직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는 경우는 52%로 절반 밖에 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48%는 교회에서 사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 수입을 보면, 이중직 수입 132만 원, 교회 사례비 40만 원, 기타수입 35만 원 등 총 207만 원이며, 이중 이중직 수입 비중은 64%였다.

[그림] 이중직 목회자의 월 교회 사례비 받는지 여부



[그림] 이중직 목회자의 월 수입

| 구분 | 금액(평균) | 비중 | 비고 |
|--------|--------|------|--------------------|
| 이중직 수입 | 132만 원 | 64% | |
| 교회 사례비 | 40만 원 | 19% | 사례비 받는 경우 평균 78만 원 |
| 기타 | 35만 원 | 17% | |
| 계 | 207만 원 | 100% |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이면서 이중직 목회자, 220명, 모바일조사, 2021. 6. 1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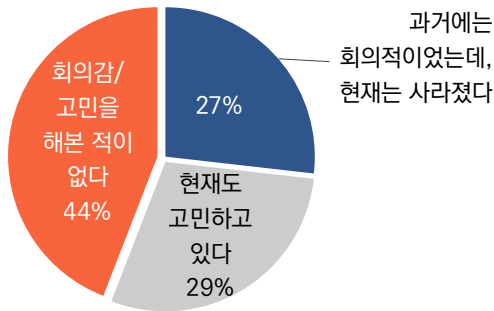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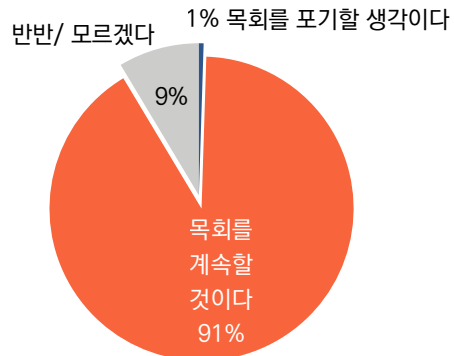
이중직 목회자, 여러 어려움 있지만 ‘목회를 계속할 것이다’ 91%

- 이중직 목회자들에게 이중직을 수행하면서 목회 계속 여부에 대한 회의감/고민을 한 적 있는지 질문했을 때, ‘과거에는 회의적이었으나 현재는 사라졌다’는 응답이 27%였다. 이 27%의 상당수는 이중직 수행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중직이 목회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방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 아직도 목회에 회의적인 생각이 있는 목회자 비율은 29%로 상당한 수준이었다.
- 이중직을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목회에 회의감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목회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비율이 91%였다. 거의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를 소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이중직 수행하면서 목회 계속 여부에 대해 고민한 경험(이중직 목회자)



[그림] 목회 계속 의향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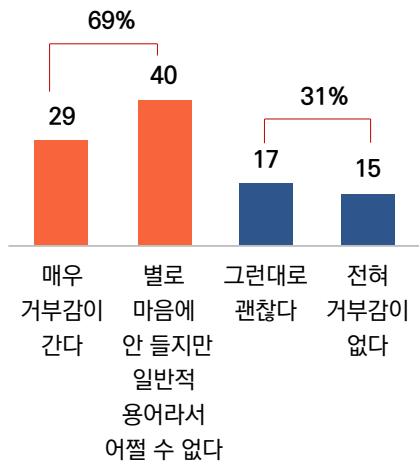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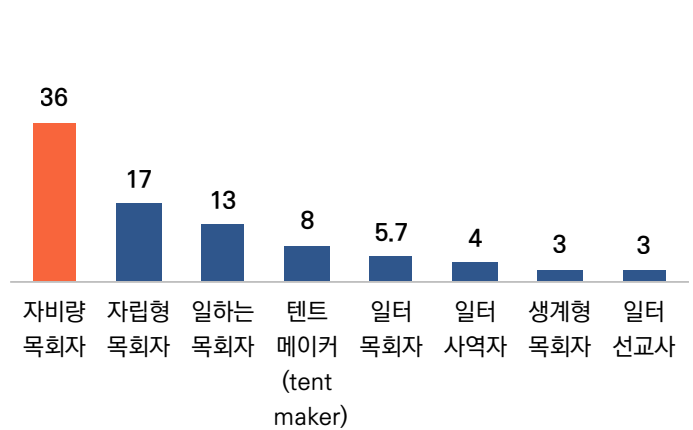
‘이중직 목회자’ 대신 바람직한 용어, ‘자비량 목회자’가 가장 선호도 높아!

- ‘이중직 목회자’라는 용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거부감이 든다’ 29%,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일반적 용어라서 어쩔 수 없다’ 40%로, 전체적으로 부정적 느낌(69%)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이중직’이라는 용어 대신 바람직한 용어를 질문했는데, ‘자비량 목회자’가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립형 목회자’ 17%, ‘일하는 목회자’ 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느낌(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 목사 대상) (%)



[그림] ‘이중직’ 용어의 대안 선호도(이중직 호칭 거부감 응답자)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Part3. 코로나19 이후 소형 교회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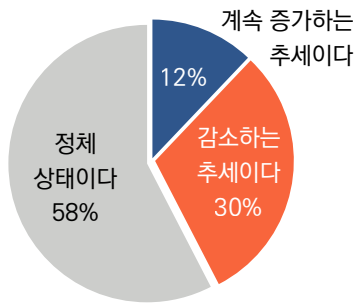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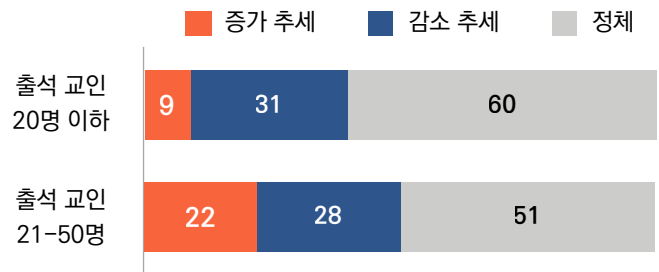
소형 교회(출석 교인 수 50명 이하), ‘교인 감소한다’

- 출석 교인 수 50명 이하의 교회는 교인 수가 적는데 심지어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배경이 목회자가 이종직에 나서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 교인 수 20명 이하 초소형 교회가 감소 추세가 더 높아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림] 교인 수 추세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전체)



[그림] 교인 수 추세(교인수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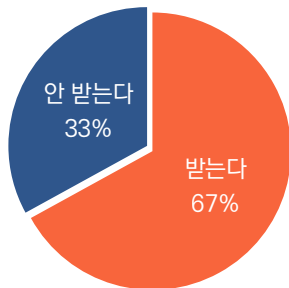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이종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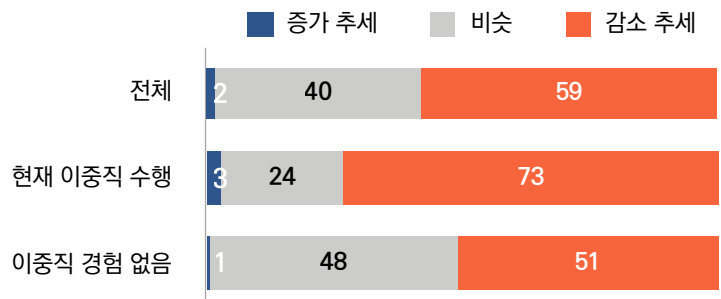
● 소형 교회의 외부 재정 지원, ‘줄어들고 있다!’

- 소형 교회의 외부 지원 받는 비율은 67%로 소형 교회 10개 중 7개 교회가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많은 교회가 외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지원마저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부 재정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9%로 절반 이상의 교회가 외부 재정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종직 수행 목회자의 경우 ‘감소’ 비율이 73%로 다른 그룹에 비해 훨씬 컸다.
- 교인 수가 줄어드는 데다가 외부 재정 지원도 줄어들면서 이종직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림] 외부 재정 지원 받는지 여부



[그림] 외부 재정 지원 증감(외부 지원 받는 교회) (%)



* 자료 출처 : 이종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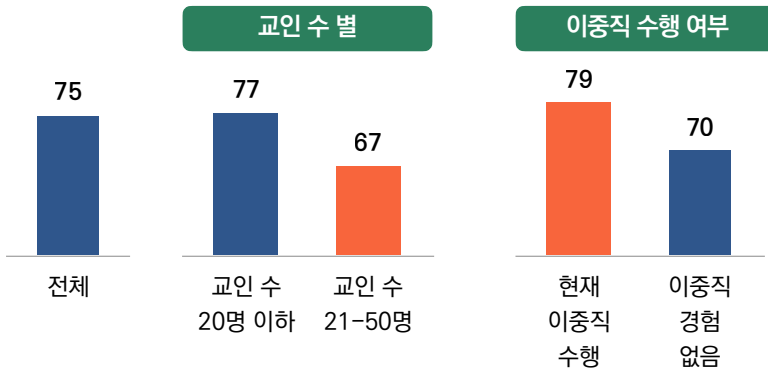
2



소형 교회, 4개 교회 중 3개 교회 ‘존립 위기’ 걱정!

- 소형 교회 목회자에게 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지 걱정한 적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75%가 ‘있다’라고 응답했고, 25%만이 ‘없다’고 해서 4교회 가운데 3교회가 존립의 위기에 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회 존립에 대한 걱정은 교인 20명 이하 교회(77%)서 특히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는 목사(79%)가 이중직을 한 적이 없는 목사(70%)보다 교회 존립을 걱정한 비율이 높다.

[그림] ‘현 상태로 가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걱정한 경험(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 목사) (%)



* 자료 출처 :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2021.08.25. (출석 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400명, 모바일조사, 2021. 6.10-6.17)



시사점

이중직 목회자가¹⁾ 늘고 있다. 이중직 목회는 2000년대 들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2001년 이전에 이중직 목회를 시작한 비율이 2% 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2010년 이후에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했는데 이중직 목회를 시작한 비율이 2001년~2010년의 10년 사이에는 15%였는데 2011년~2019년 까지 9년 동안에는 56%, 2020년~2021년 5월의 코로나19 이후 1년 5개월 사이에는 27%나 되었다(6쪽). 이번 조사 결과, 출석 교인 50명 이하 소형 교회 담임목사 중에서 현재 이중직을 수행하고 있는 비율이 32% 이고, 그 동안 한 번이라도 이중직을 해본 경험률은 48%나 되었다.

이중직 목회자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교인 수 감소가 급격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예장통합의 교세 통계에 따르면 전체 교인 수가 2010년에는 285만 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51만명으로 약 12%가 줄어들었다. 또한 1개 교회당 평균 교인 수(중양값)는 2010년에 72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51명으로 22%나 감소했다(넘버스 67호). 교회의 소규모화가 진행된다는 것은 교회의 현금 수입이 줄어들어 목사의 사례비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지 못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에서 출석교인 50명 이하 교회 담임목사 가운데 48%는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2쪽). 또한 이중직 목회를 시작한 이유도 주로 경제적 이유(61%)라고 응답했다(6쪽).

이중직 목회자들은 처음 이중직 수행을 결심할 때 자괴감에 괴로워하고, 교인과 동료 목회자의 시선을 의식하여 고민에 빠진다(7쪽). 이중직 목회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중직 목회를 바라보는 교단과 주위의 시선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다. 목회자가 직업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는 것이다. 1위로 응답한 기준이 역시 '수입'이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업을 고르는데 '수입'이 기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당연한 '수입'이 기준이 된다고 하는 비율이 37% 밖에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근무일/근무시간 조정의 자유로움'이 그에 못지 않은 31%, '근무조건(근무일, 근무시간)'이 22%였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목사가 직업을 갖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회를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목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도 따지지만, 오히려 수입이 적어도 근무 조건(근무일, 근무시간)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직종을 선택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중직 목사들이 단순 노무직이나 자영업을 주로 선택하는 것도(8쪽) 기본적으로는 사회에서의 직업적 능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목회를 위해 근무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기 때문이기도 한다.

이제 이중직 목회자에 대한 시각을 바꿀 때가 된 것 같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을 갖는 목사라는 한계적 존재가 아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투철한 목사로 보아야 한다. 비록 교인이 몇 명 있지 않아서 교회 존립을 걱정하기도 하지만 그 걱정을 떨쳐 내고 목회가 소명이라는 것을 붙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를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려고 하는 것이 이중직 목사이다(10쪽). 힘든 육체 노동으로 인해서 피곤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와 목회를 성실하게 감당하려는 것이 이중직 목사이다. 생명의 위협을 견디며 소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라면 생활의 위협을 견디며 소명을 실천하는 사람이 이중직 목회자이다. 소명을 위해서 비이중직 목사보다 몇 배 이상의 수고를 하는 그들에게 이제 힘찬 박수를 보내어 응원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중직 목사이든 아니든 '이중직을 왜 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요'라고 답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답해야 한다. '목회를 더 잘 하기 위해서요' 라고!

1) 이중직 목회자라는 용어에 대해 이중직 목회자와 일반 목회자 모두 거부감이 심하다. 이들은 오히려 '자비량 목회자'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넘버스는 이번 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중직 목회자라는 용어를 썼다. 다음부터는 자비량 목회자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최근 언론 보도 통계

1.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
우리 국민,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 '11월 말이 적절하다'는 의견 우세!
2. [2020년 아동학대 통계]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12분 마다 한 번꼴!

언론 보도 및 이슈 큐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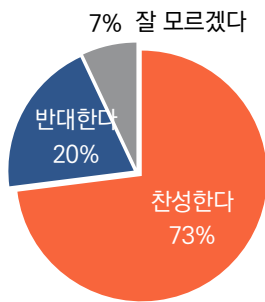
1. 위드코로나에 대한 국민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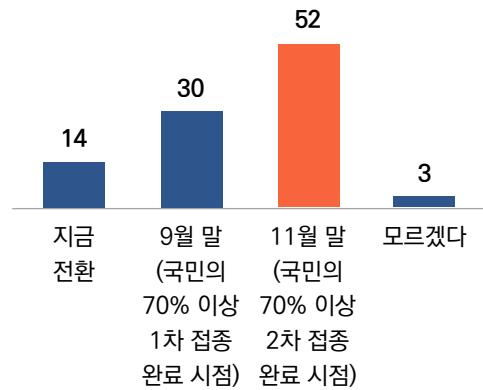
우리 국민,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 ‘11월 말이 적절하다’는 의견 우세!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최근 발표한 ‘제 6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8/30~9/1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방역 정책을 위드코로나(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드코로나로의 적절한 전환 시점(찬성자 대상)은 ‘11월 말 국민의 70% 이상 2차 접종이 완료되는 시점’이 5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 이처럼 위드코로나 전환 시점을 11월 말로 보는 국민 인식이 높는데, 정부 정책이 국민 인식과 동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가정하면, 교회에서도 12월부터 어느 정도 회복을 예상하고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방역 정책의 위드코로나(일상 속 코로나) 전환 찬반



[그림] 위드코로나 적절한 전환 시점(찬성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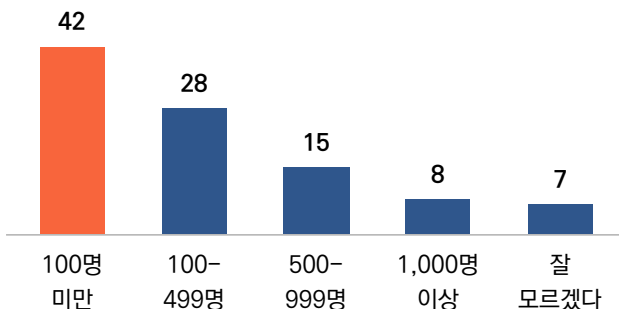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6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 2021.09.07.(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모바일조사, 2021.08.30.-09.01)

● 국민의 42%,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평균 100명 미만일 때 일상 유지 가능!

- 일상 유지가 가능한 코로나19 확진자 규모를 질문했는데, 하루 평균 ‘100명 미만’ 42%, ‘100-499명’ 28%, ‘1,000명-4,999명’ 4%로, 국민들은 하루 100명 미만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일상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일상 유지가 가능한 하루 확진자 규모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제 6차 코로나19 대국민 인식 조사', 2021.09.07.(전국 만18세 이상 일반국민, 1000명, 온라인/모바일조사, 2021.08.30.-09.01)

2. 2020년 아동학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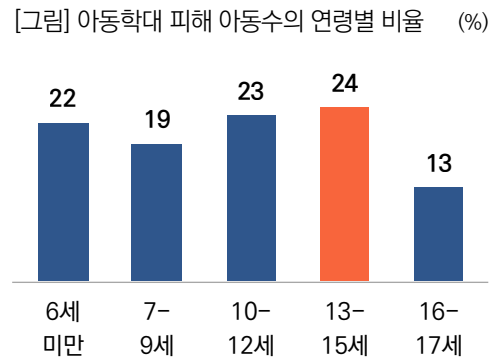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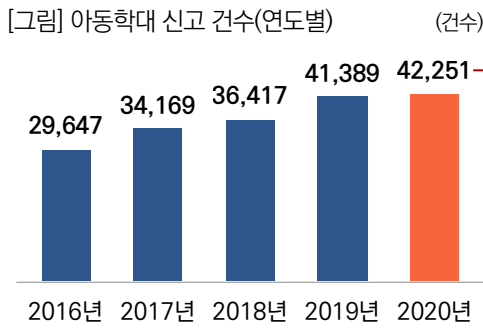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사망으로까지 연결되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넘버즈] 80호(2021년 1월)에서 2019년 자료를 기준으로 아동학대 통계를 다루었는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 데이터를 발표하였는데, 관련된 가장 최근 자료여서 소개한다.

1



2020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12분마다 한 번꼴!

- 최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아동 학대 신고 건수는 42,251건으로 전년도 41,389건 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 평균 116건, 시간당 4.8건가량 되는 수치이다. 즉 이러한 통계 수치를 기준으로 보면, 12분마다 한 번꼴로 아동학대가 발생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연령은 '6세 미만' 22%, '7-9세' 19%, '10-12세' 23%, '13-15세' 24%, '16-17세' 13%로, 4명 중 1명이 초등학교 이전 영유아 단계에서 학대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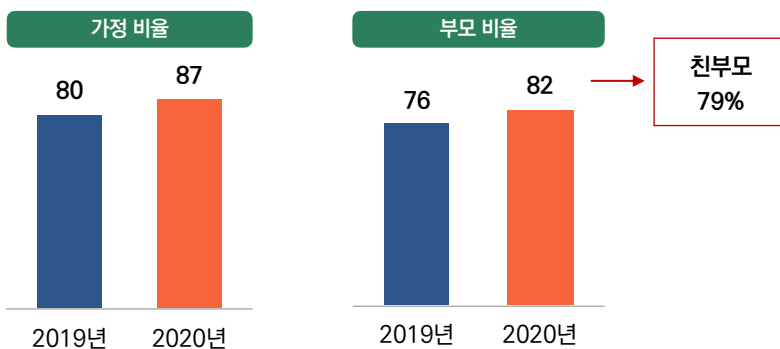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08.31.

● 아동 학대의 87%는 '가정'에서, 학대 행위자의 79%는 '친부모가!'

- 아동학대가 주로 일어나는 장소는 대부분 '가정'(87%)이었는데, 2019년 80%보다 7%p가 증가했다.
- 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82%였는데, 2019년 76%보다 6%p 증가하였다. 특히 '친부와 친모'의 비율이 79%로 나타나, 주로 아동 폭력은 '가정'에서 '친부모'에 의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아동학대 장소(가정), 학대자(부모) 비율 (2019vs2020)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0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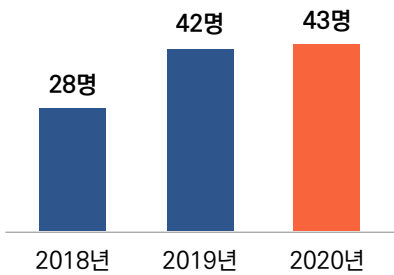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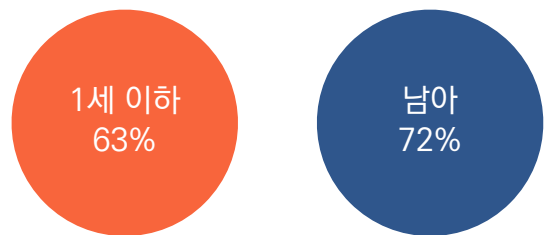
2020년 한 해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한 아동, '만 1세 이하' 영아가 63%!

- 2020년 한 해 아동학대 행위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으로 2019년보다 1명이 더 늘었다.
- 사망 아동의 연령을 보면, '만 1세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만 1세' 16%로 '1세 이하'가 63%를 차지했다. 특히 학대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갓난아기 시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은 매우 아픈 데이터이다.

[그림]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아동 수(연도별)



[그림] 아동학대 사망 아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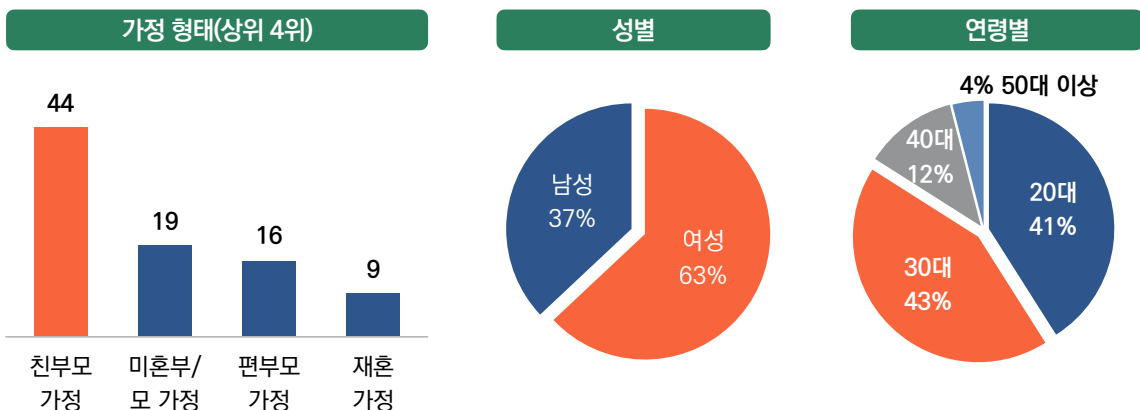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08.31.

●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 '친부모' 44%

-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 중 '친부모 가정'이 44%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미혼부/모 가정' 19%, '편부모 가정' 16% 등의 순이었다.
- 또한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는 '여성'(63%)이 '남성'(37%)보다 많았고, 연령 분포는 '20대'(41%)와 '30대'(43%)가 84%를 차지했다.

[그림]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 유형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요통계', 2021.08.31.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데일리 오피니언 제464호\(2021년 9월 2주\) - 코로나19 정부 대응 평가·이유, 추석 명절맞이 계획·기분](#)

[전국지표조사 리포트 제45호 \(2021년 9월 2주\)](#)

사회
일
반

['10명 중 6명' 올 추석 고향 방문 위험"...선물 인기투표 1등은?](#)

경향신문_2021.09.08.

["우리나라 성인 200만명 기본적인 읽기·쓰기·셈하기 못 해"](#)

연합뉴스_2021.09.07.

[방역 피로감 극에 달하자... 추석 계기로 '위드 코로나' 여행연습](#)

조선일보_2021.09.04.

[1020 극단적 선택 10% 증가... '통합시스템'으로 위기청소년 발굴한다](#)

경향신문_2021.09.08.

[나만 그렇게 아녘네? 학부모 57.5% "아이랑 같이 게임"](#)

국민일보_2021.09.03.

['나혼산' 여성, 20년간 2.6배 증가...임금소득 남성의 70%](#)

중앙일보_2021.09.06.

[하루 평균 성폭력 86건·데이트폭력 27건 발생](#)

연합뉴스_2021.09.05.

["코로나 사태 이후 '저밀집 여행' 선호 더 뚜렷"](#)

연합뉴스_2021.09.08.

[한경연 "韓 청년구직단념자 5년새 18% ↑ ...청년 경제활동 부진"](#)

연합뉴스_2021.09.09.

[삼성·네이버도 신입 80% 이공계, SKY 문과보다 지방대 뽑는다](#)

조선일보_2021.09.06.

[수도권 상위 20% 집값 15억 돌파... 文 정부 출범 이후 2배 '깡충'](#)

한국일보_2021.09.03.

["한국, 소셜앱 지출 세계 5위...유튜브·카톡·당근 많이 써"](#)

연합뉴스_2021.09.08.

['1미터 목줄' 묶어 개 사육 괜찮나...국민 5명 중 4명 "법적 금지해야"](#)

경향신문_2021.09.01.

교육

[초등학교 42%, 말로 때리는 ‘학폭’에 멍든다](#)
 서울신문_2021.09.05.

[초·중·고 정보 교육…미·일은 400시간 이상, 한국은 51시간](#)
 중앙일보_2021.09.06.

경제

[서울 오피스 가격도 뛰었다…2분기 상승률 세계 최고](#)
 연합뉴스_2021.09.09.

["10배 수익 명함도 못 내밀어"..당근마켓 몸값, 70배 뛰었다](#)
 한국경제_2021.09.03.

[작년 모바일 주식거래 하루 26조… 220% 급증](#)
 동아일보_2021.09.08.

기후환경

[국민 80 기후위기 심각…91 대선 의제로 다뤄야](#)
 한국경제_2021.09.05.

[소비자 34% "친환경 제품, 6~10% 비싸도 사겠다"](#)
 연합뉴스_2021.09.05.

["나는 기후변화에 반대하는 조부모다"…'그레이 그린' 등장](#)
 한국일보_2021.09.05.

트렌드

[자기 신념 드러내는 ‘미닝 아웃’ 소비… 40대·여성·진보층서 적극 실천](#)
 한국일보_2021.09.09.

["이 나이에 밥순이 하라"..6070세대도 밀키트 산다](#)
 해럴드경제_2021.09.07.

[기획기사] 빛에 짓눌린 MZ세대 - 중앙일보

- [260조 빚 짊어진 2030, 부채 연소득 두 배 넘어 ‘시한폭탄’](#) 2021.09.04
- [MZ세대 1인당 신용융자 6287만원, 반대매매 공포에 떨어](#) 2021.09.04
- [‘마통’ 신용대출 앱서 5분이면 OK, 핀테크 경쟁이 대출 키워](#) 2021.09.04

목회데이터연구소 후원자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밀양남부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P, 서울노회아동부연합회(예정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정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제이제이경제연구소,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불회, (재)CBS,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 GoodTV, IFJC 가정의 힘(가나다 순)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동광에스아이, (주)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셀파 C&C, (주)시스코프, (주)예증세무법인,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튼건강과학, (주)하츠/(주)백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후원 개인 | 고영관, 고재환, 고현권,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렬,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훈,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홍일, 김흥기,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노석,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섭, 송오뜸,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우애라, 유성민,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여민, 이광호, 이달훈,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춘봉, 이현, 이현구, 이현식, 이효택, 이훈희,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우성, 장형철, 전응림, 전치영, 정부활, 정용철, 정종섭, 정준, 정준,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차용현,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준, 최준혁, 최현갑, 한재웅,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의숙, 홍혜숙, 황태기(가나다순)

신규 후원 | 이윤찬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월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 방법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 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CBS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김준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실장 | jy0113@mhdata.or.kr
박태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MOU 기관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 (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아드폰테스, (사)아시아미션,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